달서구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소

달서구가 지난 11일(목)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태훈 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회의장, 윤재옥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각급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상인3동 청사는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과 함께 현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288.2㎡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했다.

신청사는 총 사업비 85억여 원을 투입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했다. 1층은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임산부휴게실, 2층은 회의실과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3층은 주민자치센터, 예비군 동대 사무실로 구성됐으며 4층은 대구지역 최대규모의 스마트팜이 자리잡아 첨단기술을(IoT, 인공조명, 양액재배) 기반으로 미래도시농업을 운영하고 도시농업 체험프로그램도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신청사 개소를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복지수요에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세경 객원기자

성서경찰서, 실종예방지침 운영협의회

대구성서경찰서는 지난 11일(목) 실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 코드아담이란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아담 월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으로 관리 주체가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 모든 역량총동원을 의무화한제도이다.

달서구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11일(목) '상호존중의 날'을 맞아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존중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가창 정미네

달성군 가창면 헐티로2길 26 / 문의 ☎053-767-8522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감자전'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정미네!'

인기를 실감하듯 가게 앞 주차장부터 많은 차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가게 앞마당은 물론 앞마당까지 넓은 마당에 주차장이 마련되어있다.

'감자전'으로 유명세를 치렀던 맛집이다. 감자전을 주축으로 감자전, 미나리전, 부추전, 촌두부와 식사류로는 보리밥, 수제비, 칼국수, 칼제비가 있고 돼지불고기와 닭불고기까지 다양한 종류로 손님들의 발길이 멈추지 않는 곳이다. 감자를 슬라이스하여 한 장 한 장 넓게 펼쳐 큰 접시 가득 올려 나오는 감자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감자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정미네의 대표적인 메뉴이다. 대부분의 손님상에 하나씩 있는 감자전. 바삭함에 한번 부드러움에 또 한 번 자꾸만 손이 가는 만큼 오랜 시간 인기있는 감자전이다.

닭불고기도 아주 매력적이고 맛있기로 유명한 메뉴 중 하나인데, 닭 다리 살로만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육즙이 부드럽고 야들야들해 막걸리 한잔과 함께 먹어도 참 좋을 것 같다. 게다가 불향이 배여져 군침을 돋게 하고 살짝 매운맛도 감돌아 마지막 한점까지도 아주 만족시키게 한다.

얇게 반죽을 떼어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아주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수제비냐, 칼국수이냐 고민일 때는 둘 다 먹어보자! 칼제비를 주문하면 쫄깃한 수제비와 칼국수 면발을 모두 맛볼 수 있다는 사실! 정미네의 시그니처 감자와 애호박, 부추가 들어가 있고 뜨끈한 국물에 수제비 한 점 칼국수 한 젓가락 모두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인기 메뉴 중 하나이다. 칼제비는 2인 이상 주문 가능하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걸음에 특히 주말 낮에는 웨이팅은 불가피하겠지만 회전율도 좋아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맛집 중 맛집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비 오는 날 칼국수와 수제비뿐 아니라 전 종류가 생각이 많이 나는 만큼 이제 본격 시작되는 장마철 모든 메뉴가 인기가 좋은 가창 정미네로 가보는 것도 좋겠다.

이진하 객원기자